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도시재생 구현



안용훈 과장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신도시의 탄생과 구(舊)도시의 쇠퇴는 현재 진행형이다. 화려한 신도시의 탄생으로 상주인구 감소, 기능의 쇠퇴, 행정기관의 이전 등 도심 공동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구도심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광주시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법령의 제정 등 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행정,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희망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등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Win-Win 효과를 구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택이 노후 됐다”, “도시가 침체되었다”, “우리 마을은 교통도 안 좋고 살기도 어렵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아파트 건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쇠퇴된 도시를 치유하려 했고, 노후된 마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존의 물리적인 개발방식은 개발과정(주민 의견수렴, 토지 등의 보상)을 거치는 동안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성이 열악한 지방도시의 경우는 사업자의 참여 저조로 인하여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아파트 위주의 일률적인 개발 사업은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신도시의 탄생과 구(舊)도시의 쇠퇴는 현재 진행형이다. 화려한 신도시의 탄생으로 상주인구 감소, 기능의 쇠퇴, 행정기관의 이전 등 도심 공동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구도심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는다.

현시대 도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재생’

이러한 구도심의 예견된 쇠퇴를 치유하고자 우리시에서는 과거의 물리적인 개발방식에서 탈피하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행정의 방향 또한 구도심과 신도시 간(間)의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는 ‘도시재생’을 현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란 용어는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뉴타운에 익숙한 시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재생’이란 사전적 의미로 ‘소생, 부활’ 즉, 상실된 생명체의 일부가 되 살아남을 의미하며,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란 한 도시가 겪고 있는 쇠퇴(Decline)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능동적 처방이자,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인 문제 해결 접근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시재생’은 최근 세계화에 따른 중소도시의 침체와 근린 공동체의 약화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시장중심주의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은 국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민간 협력이나 민간 부문의 활동을 중시하는 추세이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주민,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도시설계 전문가, 교수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재생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의 폭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처음 시도한 제1회 워크숍에서는 ‘광주시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구 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 방안 ▲미래지향적 도시설계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으며, 민·관·전문가들이 네트워크(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주축으로 하는 ‘상향식 도시재생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회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에서는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창원시, 인천시 등 다른 도시의 재생사업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연계성과 주민 역량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10월까지 5차례 개최될 우리시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단순한 비전 제시보다는 옛것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진정한 도시재생 실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워크숍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연계와 상권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도시정체성 확립과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전면철거 방식의 구도심 정비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주민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 지역의 원주민이 재정착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행복한 창조 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과 광주시가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이처럼 우리시는 민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과 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더불어 관련 조례제정, 서민층 대상 임대주택 확보 등 제도적 측면에서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을단위 재생사업인 창조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등 근린형(가까운 이웃) 마을재생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선 첫째로,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마련의 일환으로 우리시는 구도심의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 8.5%)을 일괄 매입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활성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올해 4월 1일 제정 시행한바 있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도 「도시재생법」을 제정 준비 중에 있다.

둘째, 노후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65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135억원을 더하여 총 900억원으로 주택 1,200호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구역내 원주민 재정착을 돕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 1,200호 공급 사업은 신규주택 건설을 탈피하고 민간사업자가 기피하는 재개발구역내의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원주민의 재정착을 도와 도심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근린형 재생사업이자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희망마을 사업은 영세민 밀집지역 내 거점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들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생활공간개선, 복지 및 수익사업 등 복합적인 마을복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금년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이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문화 희망하우스 조성’이라는 테마아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상담소, 커뮤니티, 체육시설, 공방 및 공예품 홍보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지난해부터 지역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대표적인 마을재생 사업으로 시작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주거·문화·복지·일자리가 어우러지는 통합적 마을 단위 재생사업으로 5개 자치구별로 시범마을을 1개소씩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창조마을은 대규모 물리적 방식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마을주민들이 직접 살고 싶고, 살기 좋은 행복한 창조마을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인적자원(휴먼웨어)이 모여 마을의 현황분석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물리적 정비(하드웨어)와 교육, 자치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어우러지는 복합적 마을재생을 유도함으로써 주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긍정적 반응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

우리시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을 통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법령의 제정 등 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행정,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희망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등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Win-Win 효과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렇듯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고 이론과 실재가 소통(참여)하는 도시재생이야말로 광주시가 꿈꾸며 만들어 가고자하는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제와 엠블럼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대한민국 건축사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바랍니다.

時+文=建築
건축사, 삶을짓다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주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엠블럼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 모금운동

건축사회원의 이름으로 성공개최를 위한 협찬금을 보내주세요!

회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힘이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빛낼 수 있습니다!

-협찬금납부방법

계좌번호: 신한 131-015-470552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협찬금을 지원하신 모든 회원님들은 홍보책자의 기부자 명단에 수록됩니다.

협찬금 납부 및 약정서 제출 건축사

2012. 8. 8 기준

〈협찬금 납부〉

16개 시·도 건축사회		20,000,000원
전라남도건축사회장	윤문곤	2,000,000원
전라북도건축사회장	이성업	2,000,000원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1,000,000원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신정철	1,000,000원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안태경	1,000,000원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1,000,000원
(주)엘에이피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정형무	300,000원

〈약정서 제출〉

건축사사무소 선명	강석훈	1,000,000원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강현구	1,000,000원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창율	1,000,000원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장정수	1,000,000원
간토 건축사사무소	곽영경	100,000원
(주)유지 건축사사무소	김유지	100,000원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RA National Convention, 2012 Festival of Korean Architects

10. 25 Tur ~ 26 Fri 본대회 10. 26 Fri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홀리데이인 호텔
대상: 전국 16개 시, 도 건축사회 회원 8,000여명

주최: 대한건축사협회(KIRA)

주관: 國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후원: 국토해양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설단체연합회,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문화재단의 꿈-‘문화의 숲 함께 가꾸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글·신영복-



박호재 실장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

2011년 1월, 광주를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로 이끌기 위한 조직인 '광주문화재단'이 출범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임을 자처하는 광주에 걸맞게 문화재단의 출범은 시민을 물론, 문화관련 단체들의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문화재단의 주도적인 사업추진계획에 시민들과의 소통 또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분명한 개선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에서는 특별기획 지면을 통해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 박호재 실장의 원고를 게재하여 향후 광주문화재단의 정책방향을 독자들과 함께 모색해보려 한다.

문화거버넌스 체제 지향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GCF:Gwangju Cultural Foundation)의 설립 배경은 좀 낯설었다. 기존의 공공문화재단들이 문화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체험을 확대하는 등 공공의 서비스를 통해 문화진흥을 꾀하는 것이라면, GCF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진흥을 통해 성취된 시민사회의 문화적 상상력을 광주공동체가 문화창조도시로 비상하는 동력으로 삼자는 진일보된 염원에서 시작됐다. GCF의 설립배경이 이처럼 차별화된 보폭을 취하게 된 데는 광주가 걸어온 근현대사의 족적과 지역공동체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한 고민이 하나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으로 일컬어지며 문화예술의 본향과 같은 예맥을 이어온 도시였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쟁이라는 현대사의 격변을 겪으며 그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인권·평화로 기치화 된 5·18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지가 집단적으로 발현됐다.

GCF 설립은 이러한 광주시 문화정책의 특수성과 민간 협력네트워크가 문화진흥의 주관자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출연기관이라는 예산구조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협력구조인 문화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한 것이다.

민간주도 이사회 구성 및 재단의 정체성 및 향후 비전을 고심하는 정책부문에 각종 위원회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취지 때문이었다.

7대 중점목표 설정, 50여개 프로젝트 추진

GCF는 출범 초기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로 비상하는 추진 전략으로 설정된 7개 과제는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축제의 전국·세계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복지 확대 ▲국제문화교류 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화환경 조성 ▲문화자원 및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 등이다.

7대 목표 아래 진행된 사업을 대별해보면 50여개 정도이며, 문화예술진흥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심의와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 세부과업들이 연중으로 추진됐다.

문화창조도시 광주발전의 인적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문화농부 1만명 양성 프로젝트는 2011 한해 동안 5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해 큰 성과를 기록했다. 시민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예술감식력 확장을 위해 국내 대표 문화 CEO를 초청한 문화나무 상상강좌는 미술·공연·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10차례 강연에 매회 200여명이 청강하는 등 각광을 받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은 GCF의 의욕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일원을 문화예술 생산·소비·유통의 공간으로 특화시키고자 한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사업을 추진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획기적 성과로 전국적인 주목사례가 됐다. 구 전남도청 리모델링공사 차단막 예술작품화 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은 GCF가 공모경쟁을 거쳐 수주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GCF가 단순한 프로젝트 대행자의 역할을 벗어나 지역작가·시민사회와 합작 워크숍 형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을 주관한 성공적인 모델로 남겨졌다.

국제교류문화 네트워크 구축은 GCF 개별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의 협력사업 형태로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추진단과 협력한 2011 아시아문화포럼은 10개국 30여명의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외 대학생·예술인 등 400여명이 참여해 호황을 이뤘다.

공연예술·전시부문의 결실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물로 GCF가 제작한 '자스민 광주'는 세계적 공연예술축제인 2011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해

큰 성취를 이뤄냈다. 페스티벌 공식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으며, 인권상과 '바비시 스타 어워드' 후보로 등재되는 등 향후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따뜻한 문화나눔기를 기치로 내건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사업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았을 정도로 왕성하게 펼쳐졌다. 모셔오는 무료관람 프로그램인 문화바우처 사업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총 7,320명이 수혜를 받았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다문화가족·새터민 등 총 1,075명이 체험여행에 동참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수주한 꿈꾸리 오케스트라 육성 사업은 소외 아동 35명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연 중 음악·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정부 지원이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전경

성과와 전망

GCF의 2011년은 다양한 사업추진 실적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서두른 짧은 준비기간의 후유증이 노출된 한 해였다고 총평해볼 수 있다. 세부적인 문제들은 무엇보다 GCF 출범 초기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우려했던 지적들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우선 초창기 GCF의 전망이 '독립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했다. 독립성의 훼손은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취지를 왜곡함으로써 종내는 문화갈등의 진원지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우선 광주시가 주관해 온 문화예술사업의 상당 부분이 GCF로 위탁 운영되고, 문화관광부나 문화예술위원회의 기존의 매칭사업 또한 재단의 몫이 되는 등 경성적인 사업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됨으로써 GCF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기획 사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재단의 출범 1년 발자취를 총괄하는 백서가 발간되고 또 목표연도를 2020으로 설정한 재단중장기전략보고서가 오는 11월중 채택될 예정이어서 재단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는 민관협력의 협치기구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범 초기 문화거버넌스로서의 위상을 자임했지만 그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지적은 소통의 문제로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단계 구축된 민간단위와의 협력관계를 민간 거버넌스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소통문제에 대한 근본해소책이 될 것이다. 특히 이는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민간단위의 문화역량 확장 문제와도 긴밀히 연계돼있는 과제라 볼 수 있다.

문화 인력양성 협력, 정책사업 공동 수행, 국비사업 민간 수탁운영 확대 등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문화공동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GCF 주관 사업운영의 이니셔티브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지침 마련 등 GCF 내부의 시스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 문화나무 상상강좌



▲ 자스민 광주



▲ 문화바우처 사업



▲ 꿈꾸리 오케스트라



▼ 기획여행바우처



▼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사업(대인시장 야시장)



▼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4_ 설계경기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남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인접 진월제와 연계한 보다 창의적이면서 쾌적한 공간구성과 주변 진월운동장과의 조화, 경제성, 예술성및 작품성이 뛰어난 건축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설계경기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 : 본 설계경기는 발주처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공지하지 않았기에 게재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1번지 일원(진월운동장부지내)

- 당선작 (주)유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 우 수 작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 가 작 이엘 건축사사무소 이원일 건축사
- 가 작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고경호 건축사, 도무수유 / 최현열, 하경원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당 선 작

1

양병범 건축사
(주)유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우 수 작

2

박동준 건축사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가 작

3

이원일 건축사
이엘
건축사사무소



가 작

4

고경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최현열
하경원
도무수유



출 품 작

신정철 건축사
심상봉 건축사
양동윤 건축사
양동현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출 품 작

김민국 건축사
라승문 건축사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출 품 작

김갑동 건축사
류연창 건축사
박상구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출 품 작

정관성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출 품 작

고진국 건축사
김경옥 건축사
(주)목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출 품 작

정태호 건축사
(주)새우리건설
건축사사무소

군산대학교는 새만금캠퍼스내에 태양광, 해양풍력등 신재생에너지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로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을 건립하기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진행하였다.

심사위원 : 김영석, 김옥규, 김진영, 문창호, 안홍섭, 유희중, 윤준원, 이상훈, 이장호, 장동국, 정동조

대지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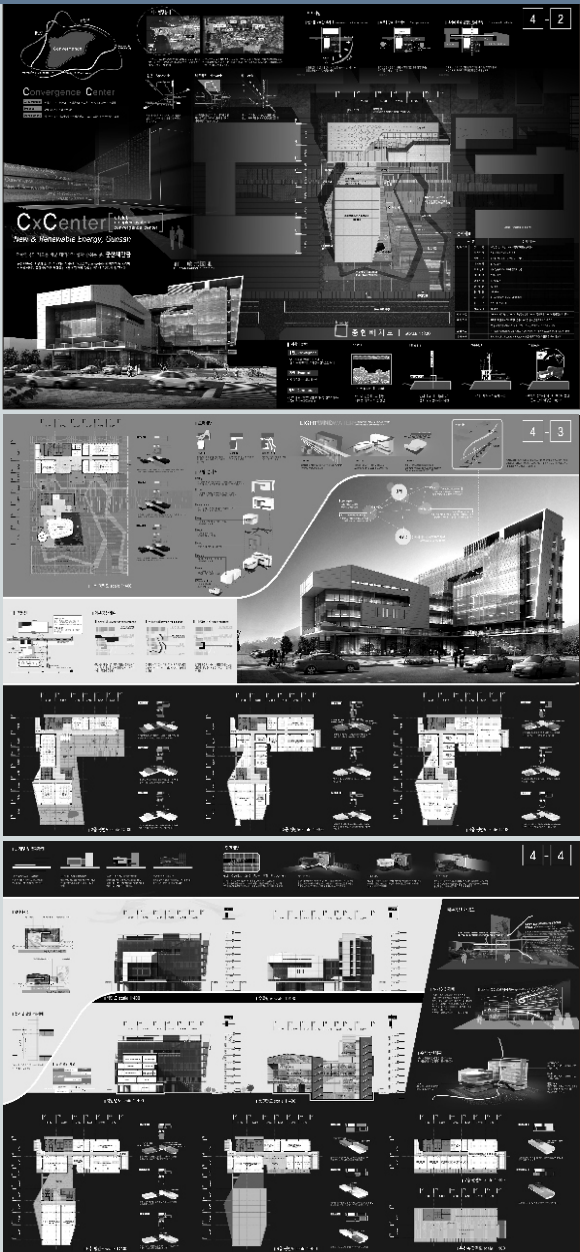
-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외 3인 건축사
- 우 수 작 삼이 건축사사무소 공병주 건축사

새만금 신 · 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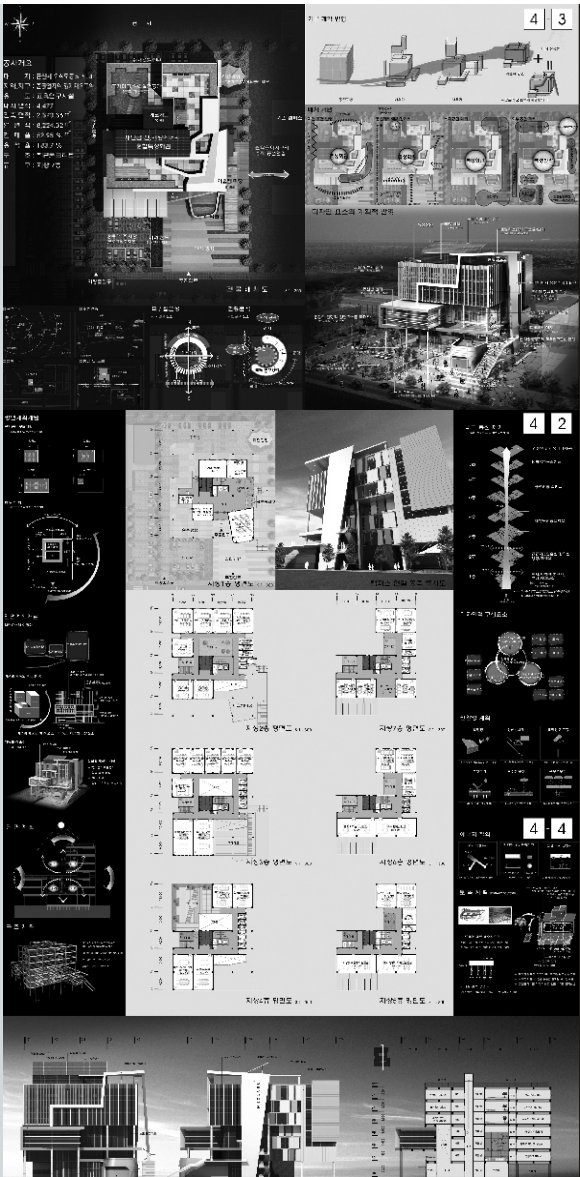
당 선 작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외 3인 건축사

건축면적 : 1,778.12㎡ 연 면 적 : 7,919.25㎡
규 모 : 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THK2AL시트접기, THK24투명복층유리, THK12목재루버, THK24칼라복층로이유리



우 수 작 삼이 건축사사무소 공병주 건축사

건축면적 : 2,370.36㎡ 연 면 적 : 8,224.32㎡
규 모 : 지상 7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메탈패널, 목재패널, 로이복층유리, 노출콘크리트



세계의 신도시_12부

» 기후 조건을 최대로 살린 기업도시 페르몽, 중산층 중심의 부동산 개발 성공도시 포스터시티, 단독주택 중심 신도시 필립스랜치



도 영 준 교수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urban-50@hanmail.net

- 1부 : 개요·호주 남동부 뉴사우스웨일스주 그린피스 _ 2011년 9월호
- 2부 :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수도 내피도, 캐나다 최초 기업도시 돈밀스 _ 2011년 10월호
- 3부 : 간척지의 중심도시 및 주도 '렐리슈타트', 세계안보정책에 의한 신도시 로스엘레모스 _ 2011년 11월호
- 4부 : 대규모 기업도시 리포카라와치, 민간기업에 의한 단독주택단지 미션베이호 _ 2011년 12월호
- 5부 : 첨단그린시티 바우반, 국토개발(댐)을 위한 배후도시 볼더시티 _ 2012년 1월호
- 6부 :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사이버자야, 부동산 개발의 좋은 선례지 섬머린 _ 2012년 2월호
- 7부 : 테마파크 배후 주거단지 셀러브레이션/골프장 중심의 데시벨 제로(0) 도시 시사이드 _ 2012년 3월호
- 8부 : 건축적 실험도시 알코산티, 학원(대학)도시 애버마리아 _ 2012년 4월호
- 9부 : 민간기업 주도의 카포레이, PUD 개념을 적용한 캘롤라이나포리스트 _ 2012년 5월호
- 10부 : 매립지를 활용한 신도시 코럴스프링스/전원도시이론을 적용한 기업도시 키티매트 _ 2012년 6월호
- 11부 : 은퇴자를 위한 도시/킹시티 영국의 실험도시 / 파운드베리 _ 2012년 7월호

Ville of Fermont

페르몽(Ville of Fermont)은 캐나다 동부 퀘벡주 북동쪽 주 경계부에 위치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소도시이며, 포스터시티(City of Foster City)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서쪽 태평양에 접한 샌머테이우(San Mateo)카운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필립스랜치(Community of Phillips Ranch)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서쪽 태평양에 접한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동쪽 끝 포모나(Pomona)시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City of Foster City

Community of Phillips Ranch

포스터시티 토지이용계획도



페르몽(Ville of Fermont)

캐나다 동부 퀘벡주 북동쪽 주 경계부에 위치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소도시로 행정구역 면적 약 497.5km²에 인구는 약 2,500명(2006년)이다. 페르몽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¹⁾에 매장된 풍부한 철광석을 채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개발한 기업도시(company town)⁽²⁾이다.

(1) 주변 : 철이 매장된 곳은 완만한 라이트(Wright)산으로 오늘날 이 산은 채굴에 의해 없어지고 다른 곳에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기업도시 : 회사(Quebec Cartier Mining Company)에서 탄광을 운영하며 페르몽의 대부분을 개발하였다. 또, 이 회사는 퀘벡주에 또 다른 기업도시인 개그논(Gagnon)을 개발하였으나, 1985년 폐광으로 도시도 함께 사라졌다.

② 1971년부터 주민들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1974년 독립적인 행정구역이 되었다.

③ 캐나다 도시계획가 모리스 데스노이어스(Maurice Desnoyers)가 스웨덴 광산도시⁽³⁾에서 영감을 얻어 계획하였다.

(3) 광산도시 : 스웨덴 최북단에 위치한 구리광산 도시인 스바파바라(Svappavaara/면적 약 0.9km², 인구 294명 ~2005년)이다. 1983년 구리광산이 폐광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조그만 마을로 남아 있다.

④ 도시의 입지적 조건 때문에 추운 겨울과 풍향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⑤ 북서쪽에 자족적이고 길이가 긴 건축물⁽⁴⁾을 배치하여 동남쪽과 남쪽의 낮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의 방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긴 건축물 : 아파트, 소매점, 학교, 술집, 호텔, 식당, 슈퍼마켓, 수영장 등을 포함하며, 추운 겨울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을 위하여 내한구조로 설계하였다. 이와 같이 자족적이고 긴 건축물을 로드타운(Roadtown)이라고 한다.

※ 로드타운 :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하스팅스(Milo Milton Hastings/1884~1957년)가 그의 친구인 챔블레스(Edgar Chambliss)의 선형도시(Linear City)에서 착안,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로드타운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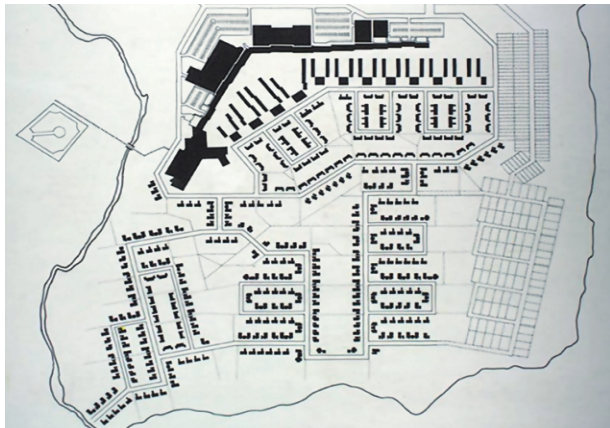
포스터시티(City of Foster City)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서쪽 태평양에 접한 샌머테이우(San Mateo)카운티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면적⁽¹⁾ 약 51.6km²에 인구는 약 29천 명(2001년)이다.

(1) 면적 : 도시 면적의 약 81.1%가 수역(水域)으로 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만의 서쪽에 접한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는 신도시(planned city)로 샌프란시스코시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필립스랜치 시가지 전경 ☞도면 오른쪽 아래 코너부분에는 Wal-Mart, Winco Foods 등 대규모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페르몽 기본계획도 북쪽 진한색의 A 모양건축물이 로드타운이다.



페르몽 시가지 전경

① 1971년 독립적인 행정구역(시)이 되었다.

② 샌머테이우 카운티 동쪽 끝 샌프란시스코만 저습지를 매립하여 도시를 개발하였다.

③ 도시이름은 이곳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재력가인 잭 포스터(T. Jack Foster)의 이름에서 가져 왔다.

④ 최초의 개발계획 구상안은 대지주인 잭 포스터가 작성하였고, 그의 상속자가 건설회사(Foster Enterprises)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⑤ 회사는 아직도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부동산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2009년 미국잡지 포브스(Forbes)는 미국의 살기 좋은 도시(town) 25개 중 10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여러 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항상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필립스랜치(Community of Phillips Ranch)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남서쪽 태평양에 접한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동쪽 끝 포모나(Pomona)시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약 6.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master planned community)이다. 필립스랜치의 도시계획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1964년 회사⁽¹⁾가 이곳의 토지를 매입하여 196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1) 회사 : Louis Lesser Enterprises, Inc., 미국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자이며 기업가인 레서(Louis Lesser/1916년 ~)가 1952년 설립한 부동산개발전문회사이다. 주로 미국의 서부지방에서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② 중산층을 위한 단독주택 중심으로 약 1만 호가 건설되었다.

③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곡선형 가로망으로 계획하였다.

④ 커뮤니티의 중심에 쇼핑센터를 배치하여 자족적 서비스가 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총 12회에 걸쳐 '건축과 도시계획' 원고를 연재해 주신 호남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도영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학자를 꿈꾸던 어린 소녀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건축 설계시장에 뛰어든 이야기!_ 차은영 건축사와의 만남

여성건축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광주건축사회원 차은영 건축사를 만났다. 여성건축사와의 인터뷰가 첫 시도인만큼 어려모로 신경이 쓰였다. 광주지역 여성건축사를 대표하는 차은영 건축사는 건축전문인으로서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광주광역시 남구협의회 회장과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회 운영위원 등 다수의 활동을 펼치며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역사학자를 꿈꾸던 어린시절...

“중학교때 조선의 역사를 실감나게 이야기 해주던 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 인현왕후, 장희빈 등 숨죽이며 선생님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후로 나는 역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 후, 사학과에 들어갔지요. 그런 내게 건축과의 만남은 필연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권유에 건축을 추천하셨던 예전 과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렇게 건축의 꽃이라는 건축사의 꿈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두 딸아이의 엄마였었고,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내가 돌봐야하는 아이들과 가정이 있어 엄두도 낼 수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꿈은 이루어져 건축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의 나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되며, 건축인이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건축사로서의 17년 세월...

“건축사로서 17여 년간을 활동해 왔습니다. 꽤 많은 시간을 건축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애정이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질적인 작품에 대한 애정이었다기보다 양적인 작업에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건축주를 만나지 못했다고 푸념도 해보지만 좋은 건축주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르 꼬르뷔제, 미스 반 데 로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가우디, 장누벨, 김중업, 이수근 등 우리가 알만한 거장들에 비해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지만 그들처럼 건축이라는 창조적인 작업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롭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축사라는 전문인을 통해 좋은 설계를 하여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름다운 건축을 통하여 문화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건축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도...

“건축사가 되어 선배 회원의 권유로 봉사 단체인 로타리클럽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미용봉사를 했는데 노인보호시설에 방문하여 머리를 깎아주고 감겨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화순 어느 마을이었었는데 광주에서 당시 유명하셨던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께 시골에 봉사를 가주시겠느냐고 하자 흔쾌히 승낙 하셔서 의료봉사와 함께 미용봉사를 했었지요. 그 후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기업인, 전문인들이 모이는 여성 경제 연합회에서 활동했고, 광주 시민사회단체연합회 운영위원, 검찰청 범죄피해자지

원센터 위원과 이사로 활동했고, 지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광역시 남구 협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북한어린이 돕기 바자회, 통일노래 부르기 대회 등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통일에 대한 의미를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주평통 광주남구협의회와 광주건축사회 건축사미술동호회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염원 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건축사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설계시장에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

“올해 예비시험합격자중 20%가 여성이라 합니다. 앞으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건축 설계시장에 여성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건축사로서의 활동하는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일에 아이돌 돌보는 일,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수주도 해야 하고, 계획도 해야 하고, 인허가 업무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밤, 낮으로 일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성건축사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지만 창조적인 일을 하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 참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성건축사들은 실력으로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하기에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후배건축사들에게 얼어붙은 설계 시장은 대책도, 대안도 없이 우리가 지고 가야할 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실한 설계도서, 부실한 감리, 설계비 덩핑, 회원 간의 가격 경쟁 등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바랍니다. 건축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제야 건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야 건축을 조금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을 보지 못하고 숲을 바라본 격이라 할까요. 이제는 조금씩 산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비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새로운 것, 창조적인 것들로 채우고 싶습니다.”

차은영 건축사! 그녀는 건축사로서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고 있는 한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녀가 갖게 될 ‘산을 보는 시야’가 그녀를 어떠한 인생으로 이끌어 줄지 관심과 기대를 가져본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건축사기자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 gkira@empal.com



광주 / 건축사사무소 시명 차은영 건축사



▲ 일곡동 주택



▲ 신성자동채(주) 전시장



▲ 민주평통 봉사 및 사업

2012까지 이야기가 숨어있는 전라북도

전라북도건축사회



맛과 멋이 한상 가득
2012전북방문의 해
VISIT JEONBUK 2012, KOREA

“5천만 마음의 고향” 전라북도!
건축사님들의 전라북도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원 일동-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_4부



김 지 민 교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jm7192@paran.com

» 하의도의 근대한옥, 목포의 석조건축

- 1부 : 공간문화, “ㄷ” 형 전통 가옥 - 2012년 5월호
- 2부 : 탐진강변의 정자, 향교·서원의 “전당후재” 형 - 2012년 6월
- 3부 : 사라진 도서의 전통민가 행복마을과 살림집 신한옥 - 2012년 7월
- 4부 : 하의도의 근대한옥, 목포의 석조건축 - 2012년 8월
- 5부 : “—” 형 재실, 외로운 “정려각” - 2012년 9월 예정

지역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지역 전통건축 분야 전문가인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의 원고를 5회 연재한다.

하의도에서 대리는 주거사 측면에서 매우 주목이 되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한때(1950~60년대) 300호가 넘었던 매우 큰 마을로 18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민가가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하의도의 근대한옥부분 중〉

목포는 개항(1897)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근대도시다.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에 외국인들이 오면서 큰 변화를 갖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새로운 건축의 유입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조건축이다.

〈목포의 석조건축부분 중〉



‘ㄱ’자형 한옥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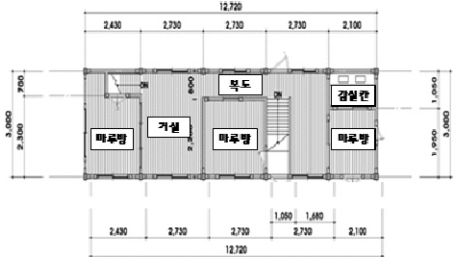
‘ㄱ’자형 한옥



뒷마루 상부



2층 한옥 평면도(1층)



2층 한옥 평면도(2층)



2층 한옥 전경



2층 계단

1. 하의도의 근대한옥

하의도는 목포에서 직선거리 37.8km, 뱃길로 2시간 거리(쾌속선 1시간)의 비교적 큰 섬이다(14.3km²). 이 섬은 무엇보다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다.

근대화 시기에 하의도를 포함한 서남해 모든 도서는 목포가 1차 관문이었고, 모든 정보와 물산은 목포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목포는 1897년 개항을 계기로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큰 근대 도시였기에 자연히 섬에도 근대화의 손길이 닿았다. 특히 하의도는 다른 섬보다 빠르게 근대풍의 한옥이 등장했다.

하의도에서 대리는 주거사 측면에서 매우 주목이 되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한때(1950~60년대) 300호가 넘었던 매우 큰 마을로 18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민가가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에 지어진 근대 한옥은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개별적 특수성(2층 한옥, ‘ㄱ’자형 등)도 있다. 그러한 한옥의 건립 배경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뒷받침(대지주, 염전 경영 등)이 크게 좌우했고, 아울러 내륙(목포, 광주 등)과의 문화적 소통도 한옥 건립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사례 1(‘ㄱ’자형 한옥, 대리 256)

- 1958년 건립
- 건축주는 대대로 마을에서 큰 부자(대지주, 염전 경영)
- 이 집은 진도의 도편수가 지었다. 기와는 무안·몽탄 기와를 썼고 목재는 내륙에서 가져왔다.
- ‘ㄱ’자형으로 실의 세분화, 마리내 별도의 감실칸 설치, 독특한 창살문양, 유리 사용.

사례 2(2층 한옥, 대리 263-1)

- 1964년 건립, 10개월 건축
- 건축주는 염전경영, 사업 등으로 큰 부자, 일본도 다녀옴
- 옛집(몹채, 가게채, 행랑채, 측간채 등으로 구성) 자리에 건축. 당시 옛집에서 여관, 담배 하치장, 가게운영
- 목수는 정한두 외 5인, 기와는 ‘대야도’에서 제작, 목재는 하의도내 21곳에서 조달
- 전통공간을 살리면서 2층이란 혁신적 건축 추구(평면, 구조, 재료사용 등)

2. 목포의 석조건축

목포는 개항(1897)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근대도시다. 작은 어촌이었던 이곳에 외국인들이 오면서 큰 변화를 갖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새로운 건축의 유입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조건축이다.

개항이후 미국 선교사들이 목포에 정착하면서 그들은 사택과 학교, 교회 등을 돌로 지었고 이어서 일제강점기에도 석조건축이 많이 등장했다. 한편 해방후에도 석조건축이 학교, 교회 등 대형 건축물 위주로 건립됐고 일반인들도 주택의 측대나 담장에 석재를 보편적으로 사용했다. 현재 목포에는 7건의 등록문화재가 있는데 그중 5건이 석조건축이다. 그 만큼 석조건축의 비중이 크고 건축사적 가치도 있다.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었지만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과 구도심의 근린상가 등도 주목이 가는 석조건축이다.

개항 이후부터 바로 목포에 다양한 유형의 석조건축이 들어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포 가까이에 있는 풍부한 퇴적암 석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퇴적암은 화강암보다 강도는 떨어지나 우선 가공하기가 쉽고 불에도 강한 편이다. 따라서 일정한 규격으로 가공하여 건축구조재로 사용하는 데는 매우 이상적이다. 즉 학교나 교회 등 큰 규모의 건물에는 당시 매우 적합한 건축재료였다. 한편 목포 일대는 내륙과 달리 지리적으로 큰 산이 없기 때문에(목재 조달 어려움) 석조건축이 쉽게 유행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목포에는 채석장이 크게 2곳이 있었다. 하나는 ‘유달산돌’이라고 하는 유달산 주변의 채석장(뒷개 화장터 부근, 대반동 부근, 현 이훈동 주택 뒤쪽 등)이고, 다른 하나는 ‘형무소돌’이라고 하는 산정동 뒤쪽의 야산이다.(현 중앙 하이츠 아파트 후면) 일반적

으로 유달산돌이 형무소돌 보다 2배정도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00년대초에 지은 선교사 사택과 양동교회가 이 돌로 지은 대표적 건물이다.

산정동 채석장은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일본인이 개발한 매우 규모가 큰 석산이다. 이 석산은 초기부터 목포 형무소 죄수들이 노역으로 개발한 것으로서 현 산정동 일신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목포형무소 건물도 바로 이 석산에서 채석한 석재로 지은 건물이었다. 이곳에서 채석한 돌은 일제 강점기에 매우 광범위하게 쓰여 져고 이는 해방 후까지도 이어져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도 이 돌을 쓰게 된 것이다.

해방 후 석조기술자 손양동의 활약도 주목이 간다. 그는 당시 목포지역에서 학교와 교회 등 큼직한 공사를 주도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이다.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 사택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구 동분원사
목포별원

목포의 주요 석조건축

구분	건물명	소재지	건립년도	비고
주택	정병조 가옥	목포시 산정동	1937년	현존
”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구 선교사사택	목포시 양동	1905년경	현존(등록문화재 62호)
교육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목포시 용해동	1950년	현존(등록문화재 239호)
”	목포 문태고등학교 본관	목포시 용당동	1958년	현존
금융	조선은행 목포지점	목포시 수강동	1924년	1988년 해철
종교	목포 양동교회	목포시 양동	1910년	현존(등록문화재 115호)
”	구 동분원사 목포별원	목포시 무안동	1930년경	현존(등록문화재 114호)
”	목포 죽동교회	목포시 북교동	1935년	2003년 해철
”	목포 경동 천주교회	목포시 경동	1954년	현존
”	목포 북교동 천주교회	목포시 북교동	1958년	”
”	목포 산정동 교회	목포시 산정동	1963년	현존(일부 보수)
공공	목포 구 청년회관	목포시 남교동	1925년	현존(등록문화재 43호)
”	남교·대성·산정파출소	목포시 남교·대성·산정동	1930년대	해철
”	목포 형무소	목포시 산정동	일제강점기	”
”	목포공생원 본관	목포시 죽교동	”	현존
”	목포부청 서고	목포시 대의동	”	”
”	무안군청 서고	목포시 북교동	”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건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며 신성스러운 으뜸의 행위이다” _ 조형근 교수

호남대학교 건축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대상자 사전조사를 통해 조형근 교수(이하 조 교수)의 이력을 알아보았는데 역시나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다. 기본으로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중신회원 에다 지회장, 부회장, 위원장 등 다수의 직위를 역임 · 현임하고 있으며, 광주 · 전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등 여러 분야에서 자문 및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이러한 그를 만나기 위해 지난 7월 24일 본지 편집위원들이 조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했다.

형창설안(螢窓雪案) : 반딧불이 비치는 창과 눈에 비치는 책상(冊床)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문에 힘을 쏟을 비유한 말



광주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조형근 교수

의대생과 법대생이 되기를 희망한 공대생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형님들 중에 의대를 가셨던 분이 계셔서 저 또한 의대생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대에 가는 것을 포기했었고, 결국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했었습니다. 1학년을 보낸 후, 2학년 때 법대에 진학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당시 법대는 자퇴를 하고 다시 진학해야 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포기를 했고, 결국 공과대학에서 건축이라는 것에 이끌려 저의 평생 업의 시작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릴 적 존경했던 종합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이 제 업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구조의 미’ 라는 생각에 대학원은 구조분야로...

“아름다운 건축물은 ‘구조의 미’라는 생각에 대학원은 구조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구조야 말로 건축물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학위는 산업공학과 비슷한 통계학을 적인 부분을 했기 때문에 CM(Construction Management)분야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시공오차라는 단어를 표시하도록 만들기도 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있을 당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서 시공분야에 교수임용이 많지 않았던 1991년 당시, 호남대학교 건축학과에 건축구조, 재료 및 시공 전문분야 교수로 임용됐고, 현재까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며 활발히 연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룬 성과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건설부였을 당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시공오차를 넣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건설부 담당자에게 피력했고, 현재 시방서에 시공오차라는 부분이 표시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설계전문가는 시공분야를 모른다? 시공전문가는 설계분야를 모른다?

“건축계에 있으며 가장 아쉬운 점은 사람들이 전문분야를 너무 구분되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통 설계를 전공하는 사람은 시공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공을 전공하는 사람은 설계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일쑤입니다. 건축은 여러분야가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전문가들도 시공을 공부하고, 시공전문가들도 설계를 공부합니다. 그러한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바로 ‘건축’이라는 완성품을 만듭니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도...

“요즘 대학에서의 건축교육환경을 보면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체제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건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건축공

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축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건축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건축은 서로 화합이 되어야만 완성됩니다. 영화를 예로 촬영기술, 조명기술, 편집기술 등의 모든 분야가 합해졌을 때 비로써 멋진 영화가 완성되듯이 건축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어느 한 분야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도, 설계사무소에도 서로 넘나들어야 자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시루떡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저는 제자들에게 시루떡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길 바랍니다. 시루떡을 보면 팔 위에 떡이 있는데 떡 위에 다시 팔이 있고, 다시 떡이 있고, 다시 팔이 있고... 이와 같이 자기가 항상 최고라는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다시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제자들이 조형근이라는 교수를 항상 겸손해하며 자기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축사들에게...

“일부 몰지각한 건축주들은 많은 건축사들에게 설계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만, 결국 그런 아이디어는 저렴한 설계비를 제안하는 비합리적인 건축사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뛰어난 아이디어는 빛을 보기 전에 사장되고, 저렴한 설계견적대로 부실한 작품이 탄생되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성에 금을 가게 만드는 행태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건축사님들께서는 하나로 뭉쳐 그렇게 불합리적인 건축주들에게 대항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축으로 광주 지역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해야...

“끝으로 여담일 수 있겠지만 광주 발전을 위해 무등산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말하는 난개발이 아니라 무등산이라는 뛰어난 자연을 건축으로 살려 명소를 만들고, 광주를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들을 머무르게 하여 대내외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도시 광주가 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조 교수에게 건축에 대한 정의를 묻자 “설계기술과 시공기술을 합하여 인간을 위해 집을 짓는 행위가 바로 으뜸의 기술! 아키텍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건축사들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개념과 의지가 그 자격에 맞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정의인 것 같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김미영, 박종호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jkira@empal.com

- 〈학력〉
1974년 : 보성 고등학교 졸업
1978년 ~ 1990년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 〈경력〉
1980년 ~ 1983년 : 육군 삼사관학교 교수 및 육군본부 공병감설 설계장교
1983년 ~ 1991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선임연구원 및 기획과장
1991년 ~ 현재 : 호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정교수
- 〈회원〉
1982년 ~ 현재 : 대한건축학회 중신회원, 현 학회 건축산업발전 진흥위원회 위원장
1982년 ~ 현재 : 대한토목학회 정회원
1987년 ~ 현재 : 한국콘크리트학회 정회원
1999년 ~ 현재 : 한국건설관리학회 중신회원, 전 호남지회지회장
2002년 ~ 현재 : 한국건축시공학회 중신회원, 현 학회 부회장 이외 다수
- 〈자문 및 심의위원〉
1995년 ~ 현재 :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1996년 ~ 현재 :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00년 ~ 현재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신기술심의위원회 위원
2009년 ~ 현재 : 세종특별자치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2009년 ~ 현재 : 2010 세계 여수엑스포 자문위원회 위원
2010년 ~ 현재 : 한국농어촌공사 가버넌스협의회 위원 이외 다수
- 〈저서〉
1984년 : 건축설계응용지침서(대한건축사협회)
1986년 : 건축공사 종합가이드시방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년 : 친환경건설개론(호남대학교 출판부)



▲ 한국건설관리학회 호남지회장과 한국건축시공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설계 · 시공 관련 세미나를 계획 · 개최했다.



▲ 싱가포르 마니나베이샌즈호텔 건설 현장답사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 1/2 광고 : 300,000원
- 하단 1/3 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 / 1년
- 구독료 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2012 광주폴리 최우수작 ‘Memorial Box of the Citizen...’ 선정

— 지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12 광주폴리 공모에서 최우수작에 고흥성, 김미희(경기도 고양시) 씨 작품 선정

선정결과: 최우수작 1(1,000만원), 우수작 2(각 300만원), 입선 5(각 100만원)

구 분	수 상 작	응모자	주 소
최우수작	Memorial Box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	고흥성 김미희	경기도 고양시
우수작	Locusta helios-태양곤충의 도시	최이규	부산시 남구
	성황나무(Shrine Tree)	배상훈 박문성	서울시 서초구
입 선	Common Room(공동의 방)	최영준	대구시 동구
	도시안의 휴식_해바라기 계단	정태중	서울시 서초구
	Camera Obscura_바늘구멍을 통해 담은 빛의도시 광주의 찰라	이상훈 안호진	서울시 종로구
	두루마리 폴리	황효석	경기도 성남시
	도시농장	남승윤 김선희	강원도 원주시

2012 광주폴리 프로젝트에 세계적인 건축사들과 함께한 광주폴리 공모전 최우수 팀이 발표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12광주폴리 공모에서 고흥성, 김미희(경기도 고양시)의 ‘Memorial Box of the Citizen...’이 최우수작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Memorial Box of the Citizen...’은 시민들 각자의 기억을 담아 추억의 장소에 기억의 박스를 쌓아두는 것을 콘셉트로 잡았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과물보다는 보이지 않는 과정, 즉 시민의 행위를 디자인하고자 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으로 평가됐다.

이외 우수작으로 태양광을 이용하여 각종 모바일 장비의 충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태양곤충의 도시(최이규)’와, 친화경과 녹색을 콘셉트로 시민에게 친화공간을 제공하는 ‘성황나무(배상훈 · 박문성)’가 선정됐으며, 입선작으로는 공동의 방(최영준) 등 5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최우수작 : Memorial Box of the Citizen...〉

Memorial Box

Memorial Box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

2012년 광주 폴리는 광주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Memorial Box는 시민의 기억을 담은 타임캡슐이다.

시민들은 각자의 기억을 담아 도시의 곳곳, 추억의 장소에 Memorial Box를 쌓는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모습으로 쌓아 올려진 Memorial Box는 일상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폴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과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 즉 광주시민의 행위를 디자인하고자 한다.

광주 역사 문화

광주시민 개인의 기억

광주시민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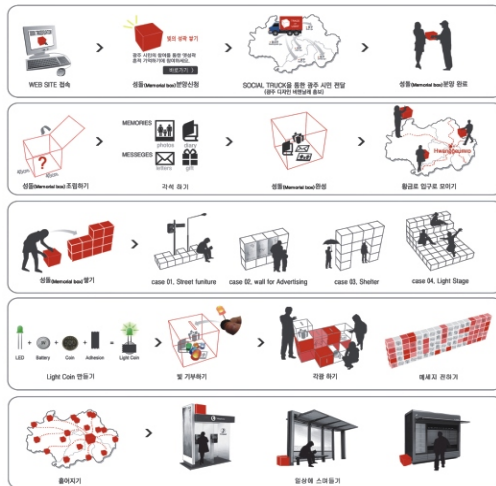
Beginning of Biennale. 각석하기 제1회

During Biennale I. 성돌(Memorial box) 쌓기 제2회

During Biennale II. 각광하기 제3회

After Biennale. 흔적 남기기 제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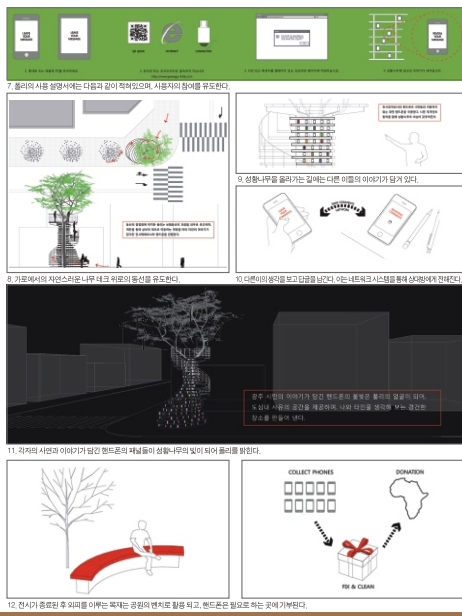
기억을 쌓는 광주시민의 5가지 행위 5 activities for memorial box by the citizen



〈우수작 : Locusta helios-태양곤충의 도시〉



〈우수작 : 성황나무(Shrine Tree)〉



제9회 광주건축 · 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요강

- 공모주제
 - 도시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내가 살고 싶은 집 그리기
- 참가대상 및 참가부조
 -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 1~3학년/고학년 4~6학년) 중학교 재학생
- 작품접수
 - 접수기간: 2012. 8. 20(월) ~ 8. 30(목) pm 6:00
- 작품응모
 - 응모는 1인당 1작품에 한하며, 별도의 도화지 배부는 없습니다.
 - 작품규격: 캔트지 4절지(크기 38cm x 53cm) 초등학교 저학년은 8절지도 가능
 - 참가비 없고 참가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http://gjkira.or.kr에 접속하여 다운받아 이름,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작품명, 작품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 접수방법: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500-876(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
 - 우편제출의 경우 9월 15일(목)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번지)
- 수상작 발표 및 시상내역
 - 수상작 발표: 2012. 9. 10(월) http://gjkira.or.kr를 통하여 발표
- 시상식: 2012. 10. 27(토) 개별통지
- 전시: 2012. 10. 25(목) ~ 10.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 시상:
 - ① 초 · 중등부
 - 최고상(총 3점): 광주광역시교육감상 및 30만원 상당 상품
 - 금 상(총 4점):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상 및 20만원 상당 상품
 - 은 상(총 8점): 광주건축사회회장상 및 10만원 상당 상품
 - 동 상(총 15점): 대한건축학회광주·전남지회장상 및 5만원 상당 상품
 - 입선(약간정): 한국건축가협회광주지회장상
 - ② 유치부
 - 최우수상(2점): 10만원 상당 상품/1점
 - 우 수 상(5점): 5만원 상당 상품/1점
 - 입 선(약간정): 상장
- 주최/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홈페이지 http://gjkira.or.kr Tel. 062)521-0025 ~ 6 Fax. 062)528-0026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9회 광주건축 · 도시 사진공모전 개최요강

- 출품작품
 - 작품내용: 아름다운 도시경관(건축물+구조물+조경)
- 출품자격
 - 응모자격: 건축과 사진에 관심있는 모든 자
- 작품접수
 - 접수기간: 2012. 8. 20(월) ~ 8. 30(목) pm 6:00 (토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작품규격: 12" x 16" 사이즈 사진(규격 엄수)
 - 제출서류: 필름 원판 또는 2BM 이상 JPG 원본파일과 참가신청서 제출
 - 등록비: 없음(1인 2작품 이내)
 -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 입상작 발표
 - 2012. 9. 7(금) http://gjkira.or.kr 게재
- 시상
 - 대 상(1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최우수상(2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 수 상(4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장 려 상(10점):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입 선(다수): 상장 및 기념품
- 기타사항
 -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작의 작품과 필름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사에 귀속됩니다.
 - 출품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타 공모전 입상작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이 취소됩니다. (상장 및 상금은 주최측에 반환)
 - 입상작품은 제9회 광주건축 · 도시문화제 기간 중 전시 (2012. 10. 25 ~ 10. 28 / 김대중컨벤션센터)
- 주최 및 주관
 - 주최: 광주광역시
 - 주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 ~ 6 e-mail: gjkira@empal.com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특별기고>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 대학생 디자인 캠프에서...

남자영 학생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광주대학교에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로 대학생 디자인 캠프가 개최됐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도시형 타운하우스’라는 주제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을 4~5인씩 한 조로 이루어 총 7개 조가 양림동 대지 site를 답사하고, 타운 하우스에 대한 설계의 성공과 실패 사례들, 단지의 외부공간계획 등을 공부하고, 단지의 유닛 등을 보면서 각각의 site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설계하도록 했다.

첫째 날은 각각의 조원들은 하루 동안 보고 느낀 점을 튜터(교수님)들과 함께 토론했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마감했다. 둘째 날엔 전날에 튜터들과 함께 토론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단지계획과 유닛 그리고 콘셉트들을 정하여 각각의 사이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아보고 더 다양한 유닛을 설정하고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중간발표가 있는 셋째 날에는 중간 발표할 모형과 설계를 위해 분주히 준비했다. 디자인 캠프의 중간발표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단지계획이 발표됐다. 튜터들은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임하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마감 발표를 위한 준비도 하였는데 짧은 시간에 계획단계에서 단지유닛 그리고 건축 모형까지... 밤잠을 설치며 노력하는 모습이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4박 5일 동안의 디자인 캠프를 통해 여러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을 공유했다. 앞으로 여러 학생들이 건축에 관한 생각을 넓게 펼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조선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남 사학 최초 건축학교육국제인증 획득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로부터 최고 등급 ‘5년 인증’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은 전라남도 사학 최초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로부터 건축학교육 최고등급인 ‘5년인증’을 2012년 7월 31일부로 취득했다.

2002년도부터 건축학전공 5년제를 운영하여 건축학교육국제인증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2008년에 건축학인증 후보신청을 했다.

조선대학교는 2011년도에 건축학인증을 신청하고 2012년도 현장실사를 통해 건축학전공(5년제)의 교과과정의 체계성, 각 담당부서간의 협력체계, 교수의 체계적인 교과과정 진행, 학생들의 체계적인 교과과정 이수를 통한 입학에서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학생 관리, 각 동문들의 후원 등은 건축학교육국제인증을 통해 모범이 되는 학교 운영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5년제)을 이수한 졸업생은 최근 개정된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로 건축사 예비시험을 면제받고, 소정의 실무수련기간을 거쳐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졸업생들은 국가간 상호 동등한 경쟁을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주제로 도시재생사업워크숍 열려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관, 지난 7월 20일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와 주관하고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가 주관한 도시재생사업워크숍이 지난 7월 20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은 일반시민, 건축사, 교수, 대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도시재생 구현’이라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과장 안용훈)의 기조연설이 진행되었고, 아키어반 건축사사무소 손성태

대표의 ‘프랑스의 「도시적」 도시조영’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 연구위원의 ‘일본 노후주거단지 재생과 시나리오 어프로치’가 발제되었다.

이와 함께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체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오세규 교수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염대봉 교수, 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흥근 건축사가 참여했다.

<특별기고>

이 글은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심상봉 회장이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광저우시 토목건축학회와 베트남 박린성 건설·건축사회에 국제교류협력차 방문하며 있었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풀어쓴 기고문을 발췌한다.

심상봉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중국 광저우, 베트남 박린성 방문일지



광저우 협회 측의 안내로 고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 투어가 있었다. 가장 먼저 들린 진가사(진씨서원)는 청나라 진씨일가의 서원으로 중국 전통방식의 백미이며, 광저우의 얼굴이라 설명한다.

이어서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주강을 넘어 현대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들어서니 그 규모나 디자인이 굉장하게 눈에 들어온다.

600미터 높이의 ‘CANTON TOWER’를 필두로 완공 중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 등의 건축물들이 부러움과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저녁에 광저우 출발을 앞두고 짬통시장, 광저우시가지, 중산기념관(손문기념관)등을 돌아보고 한 밤중 하노이행 항공기에 몸을 싣는다.

▶베트남 박린성

어젯밤 12시가 넘어 베트남 박린성에 도착한 관계로 몸은 피곤하지만 준비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쌀국수와 토스트 등으로 가볍게 때우고 광주광역시와 추진 중에 있다는 LED가로등 정비구역과 전통건축물 ‘문묘’를 돌아보고서 공식행사장으로 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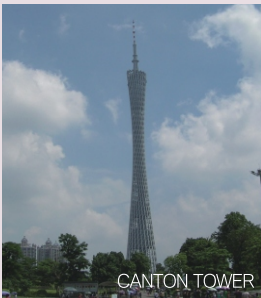
지나는 길에 자랑스러운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을 보니 왠지 마음이 뿌듯해져 온다. 외국에 나오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박린성은 하노이에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로서 면적이 822.7제곱킬로미터, 인구가 약 1백만 명 정도 되는 도시라한다.

오후 3시경 박린성 건축사회회에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고 만찬 장소인 인근 식당으로 이동 함께 즐거운 저녁을 나눈다.

하노이 시내로 이동, 하노이 시가지와 전쟁박물관, 전시관을 둘러보는 것으로 베트남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귀국하는 길, 새벽 일찍 하노이를 출발, 광저우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니 꼬박 하루가 걸린 저녁 10시가 되었다. 그리고 광주로 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이번 여행일정을 정리한다.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는 날씨가운데에서도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하고 돌아올 수 있음에 감사한다.

모쪼록 우리 광주건축사회와 두 도시간의 교류가 먼저 시작된 후쿠오카건축사회처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학술, 문화교류는 물론이고, 평화상태에 있는 우리지역의 설계시장 확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이 글을 마무리한다.



광주·후쿠오카건축교류전 출품작 모집공고

1. 출품작품
작품내용 : 현상설계 당선 또는 준공건축물로 전시회에 출품되지 않은 작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작품 CD (JPEG, PSD 파일)

2.출품자격
출품자격 : 광주광역시 건축사 회원

5. 신청서접수
접수기간 : 2012. 6. 29(금)까지
FAX, 062)528-0026

3.작품규격
JPEG, PSD 파일로 제출(규격 A1사이즈/ 594×41mm)

신 청 서 :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gjkira.or.kr

4.작품접수
접수기간 : 2012. 6. 20(월) ~ 8. 30(목)
접 수 처 : (사)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4층)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12년 광주건축공모전

“행복한 창조도시” 사람이 공존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도모되는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Community가 강화된 공간 아이디어 디자인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 주제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문화의 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Community 시설 디자인

* 심사
- 1차 심사 : 2012년 10월 4일 (목) 결과발표 개별 통보
- 2차 심사(공개심사) : 2012년 10월 18일 (목) 결과발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장소 변경 시 추후 통보)
공개심사 참여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 신청 : 062-521-0025)입장하신 분에게 기념품 증정

* 참가자격 : 전국의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자

* 시상
- 대 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특 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 가 작(10점) : 상장 및 기념품
- 입 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 신청서교부 및 등록
- 일시 : 2012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 9월 7일(금) 오후 6시
- 방법 : http://gjkira.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e-mail로 등록 및 접수
* 작품접수
- 일시 : 2012년 9월 27일(목) 오전 10:00 ~ 9월 28일 (금) 오후 6시
- 장소 : 우)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무국장 (광주역 근처)
-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 (2012년 9월 28일 우편소인까지 인정) A1 2매 (반드시 A1 2매로 제출)

문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el, 062)521-0025~6, Fax, 062)528-0026

주최 : 광주광역시
주관 : 사단법인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설계, 감리 용역시장 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신뢰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정명철 건축사

지난 7월 25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건축공사감리제도개선 준비위원회에 동의서를 제출한 많은 수의 광주건축사회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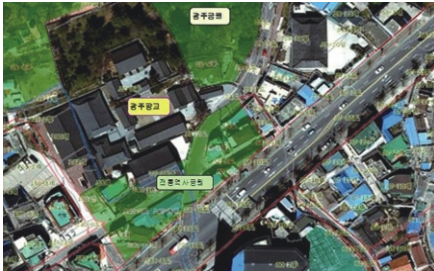
그동안 소규모건축물(상주감리제외)은 설계비에 공사 감리비가 포함된 것처럼 인식되어왔고 설계비를 주면 공사감리를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고착되어왔었다.

또한 최근 건축사가 형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어 건축사 위상이 추락됨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운영협의회가 발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계, 감리 용역시장 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신뢰성 제고, 건축사 위상제고 및 복리증진, 위법 및 불법시공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순에 따라 추진배경 및 경과보고 후 진행된 부의안건 순서에서는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규정 및 세칙 제정의 건과 임원 선출의 건이 상정·의결되었으며, 특히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김기탁(간 건축사사무소), 김종철(영산이엔지 건축사사무소), 김희현(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박신남(건축사사무소 유림), 박재홍((주)홍 건축사사무소), 신찬균(건축사사무소 우창), 안길전((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명철((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한형석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등 총 9명의 임원이 선출됐다.

한편, 창립총회 이후 열린 제1회 운영위원회회의에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장에 정명철 건축사, 부위원장에 신찬균 건축사가 선임됐다. 정명철 위원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의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및 세칙을 보완하고, 홍보를 통해 동의서 징구율을 높인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아시아 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 박차

－ 노후 건축물 16개동 철거, 공원부지 2,571㎡ 조성, 전통복원사업 추진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에 아시아 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다.

광주시는 광주향교 주변 노후화된 건축물 16개동을 전면 철거해 공원 부지 2,571㎡를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편의시설과 향토수목을 식재하는 등 전통복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지난 8월 1일 밝혔다.

시는 2010년부터 15억 원을 들여 토지매입과 보상이 완료된 향교좌측 노후 건축물에 대해 오는 3일 철거를 시작해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철거가 완료되면 전통미를 살릴 수 있는 유교 전통문화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미관 저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단계별로 지장물을 철거해 향후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그동안 시에서는 향교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가치증대와 주변의 광주공원 생태숲과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공원, 빛고을시민문화관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등을 지난 2009년에 수립한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차적으로 광주향교 전면부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심지의 조망권과 녹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광주향교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 유교 전통문화 공간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도심! 행정규제 완화되어 ‘도시재생’ 쉬워진다

－ 국토해양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8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도심에서도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왔고,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2012년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건축 및 도시재생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 주 제 :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 공모분야 : · 현지개발방식의 창조마을, 희망만들기 사업
· 낙후된 구 도심지역의 원주민 재정착을 방안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접목사업
· 도심 골목길과 푸른길 등 특화거리 조성사업
· 상가 항목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도시재생 사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가능
- 참가자격 :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거주 외국인 등 누구나 가능
- 등 록 : 2012년 7월 11일 (수) ~ 8월 31일 (금)
- 신청서 교부 : <http://gjkira.kira.or.kr>과 <http://www.gwangju.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e-mail로 등록
- 작품접수 : 2012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 ~ 9월 4일 (화) 오후 6시
- 작품제출규격 : A1(1매)
- 작품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작품제출경로 :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심사방법 :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2차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함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차 심사: 9월 6일 (목) ▶2차 심사: 9월 13일 (목)
- 시상 : 대상(1점) :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우수상(2점) : 상장 및 상금 각 200만원 / 특선(5점) :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기작(10점) : 상장 및 기념품 / 입선(다수) : 상장 및 기념품

주 최 광주광역시 주 관 광주건축단체연합회 문 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T. 062)521-0025~6 / F. 062)528-0026

전라북도건축사회, 도시재생 전문가(건축사) 포럼 개최

－ LH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최호현 박사, 호원대학교 유희종 교수 초청강연



전라북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엽)는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부터 터존뷔페(전주시 송천동 소재)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건축사 업역 확대’라는 주제 하에 전주도시재생센터 상가지원팀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건축사회 회원 30여명과 및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학계인사 20여명과 이연숙(연세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센터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최호현 박사(LH공사 도시재생사업단)가 ‘한국의 도시재생의 역사와 도시재생 기

법, 국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유희종 교수(호원대학교)의 ‘도시 재생기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유교수는 본인이 직접 주도하여 성공시킨 ‘완주군 삼례읍 아름다운 상가물’의 사례를 들어 상가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건축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경제 및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건축사의 업역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시간에서는 도시 계획을 위한 계획 수립시 건축 전문가가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산·학이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의 시간이 됐다.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열린다

－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영암 구림마을에서 개최



▲ 2010년 10월에 개최된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사진

전라남도에서는 이번 행사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한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많은 행사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슬로건 및 포스터 공모를 지난 7월 10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기도 했으며 8월 중 그 결과를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한옥건축박람회추진위원회(위원장 조용준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계자는 “이번 한옥박람회는 제1회 박람회 때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많은 도민들과 타지역 관광객들이 조상들의 슬기와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랐다.

제9회 아시아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 광주에서 열린다

－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ISAIA) is a biennial international symposium co-sponsored by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IK) together with the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ASC) and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Japan (AIJ). The 9th ISAIA is scheduled to be held on October 22-25, 2012 in Gwangju, Korea and hosted by AIK. The organizing committee of ISAIA welcomes professors, architects, building

오는 10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아시아 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9th ISAIA)이 개최된다.

ISAIA는 대한건축학회, 중국건축학회, 일본건축학회 3단체가 격년마다 공동주최하는 아시아의 국제심포지엄으로 올해는 대한건축학회(광주전남지회)의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아시아 10여 개국의 건축 관련 교수, 엔지니어, 연구원, 대학원생 등이 전공분야별로 연구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발표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이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각국의 건축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 및 대안을 토론하게 된다.

또한, 유명 석학 등의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진 건축문화와 건축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되어 우리나라의 건설기술, 건축문화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헐린다?

－ 전망타워 설계공모작으로 ‘빛의 타워’ 선정



한편 지난 6월에 준공식을 갖은 바 있는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예술감독 박홍근 건축사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도심공원의 기능과 장소의 협소함과 경관축의 형성, 역사적 기억이 있는 건축물의 보전과 문화적 재활용 등의 다양한 논의의 과정이 생략되고 있음에 염려를 하게 된다”며, “사직공원을 함부로 다루지 말자”고 광주시에 주문했다. 전망타워 설계공모 작품들은 9월호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회원친목행사 개최

－ 전주시 건축사 회원 30여명, 여수세계박람회장 견학

지난 7월 24일 전라북도 전주시건축사회(회장 김남중) 소속 회원 30여명은 회원친목행사의 일환으로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견학하고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박성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송정
광주 북구 무등로 182-1(신안동) 4층
- 서남열 건축사 / 신원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80M타워 8층 801호
- 박강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울
광주 동구 서석동 19-9번지 2층

* 전입(전남 → 광주)

- 김도석 건축사 / 미르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군분로 47(2층)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변경)

- 정관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47번길 10 2층
- 이형주 건축사 / 한가람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윤천로 102(쌍촌동) 2층

* 변경(소재지 변경)

- 박현석 건축사 / 대림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73(중흥동)
- 정인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호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7(치평동) 16-12 2층
- 주광수 건축사 / 예성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무등로 449번길 22-28 2층(산수동)
- 전승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53번길 20-22 1층
- 이승봉 건축사 / 이담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114(치평동) 랜드피아 1120호

- 광주광역시청 건축 관계 공무원 인사
 - ▶ 3급 정보 : 위길환 도시디자인국장
 - ▶ 4급 정보 : 박주욱 종합건설본부 / 이상배 도시철도건설사업본부
 - ▶ 5급 정보 : 김종호 도시디자인과 / 이은상 U대회 조직위원회 / 유금배 건축주택과 / 선종삼 도시재생과 / 홍복기 회계과 / 윤정권 경기시설과 / 심학성 종합건설본부

News 전남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박종영 건축사 / 누리 건축사사무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57-8

* 변경(소재지 변경)

- 문진환 건축사 / 금강 건축사사무소
전남 순천시 왕지동 9-9, 301호

News 전북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장영우 건축사 / 삼경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28-12

* 재입회

- 신명호 건축사 / 도울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41-1

* 변경(소재지 변경)

- 이용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93-5

* 결혼

- 김성수 건축사 / ㈜미래종합 건축사사무소
8월 4일 (토) / 자혼

* 기타

- 김주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7월 10일(화) / 서전주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 송경규 건축사 / 세림그룹 건축사사무소
7월 10일(화) / 전라교 총동창회 회장 취임

- 서구청 건축 관계 공무원 인사
 - ▶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 / 이환희 광천동장
- 북구청 건축 관계 공무원 인사
 - ▶ 오해규 건축과장
- 남구청 건축 관계 공무원 인사
 - ▶ 배운식 청사건립추진단장 / 정정석 건축과장 / 고영채 백운1동장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2012년 10월 25일, 26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광주 · 전남 · 전북지역 8월 지역 축제 안내

- ▶ 08. 10 (금) ~ 08. 12 (일)까지 제22회 나주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 전남 나주시 산림자원연구소
- ▶ 08. 11 (토) ~ 08. 12 (일)까지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 전남 순천시 월등면사무소 잔디광장 등
- ▶ 08. 11 (토) ~ 08. 12 (일)까지 2012 고창 갯벌 체험축제 - 전북 고창군 만돌갯벌체험학습장
- ▶ 08. 11 (토) ~ 08. 15 (수)까지 제22회 완주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 전북 완주군 무등화테마식물원
- ▶ 08. 25 (토) ~ 08. 26 (일)까지 2012 고창 해풍고추 축제 - 전북 고창군 해리중학교 등
- ▶ 08. 25 (토) ~ 08. 29 (수)까지 2012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 전남 나주시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 ▶ 08. 31 (금) ~ 09. 02 (일)까지 2012 광주 예술난장 ‘굿+판’ - 광주 남구 문화체험터얼수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 행 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 행 인 심상봉, 윤문곤, 이성엽
편 집 인 서재형
전 달 기 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박상윤, 전경훈, 박중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광주폴리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광주폴리와 광주문화재단 모두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작금의 난관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된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3963호 2012-07-19)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방법과 그 결과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 및 실시시기(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한번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건축물의 수시점검 사유(안 제23조의2제5항 신설)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다. 건축 관련 전문가의 점검업무 수행(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제공 요청 및 보고(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500호)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결과를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1182호, 2012. 1. 17. 공포, 7. 18.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수시점검 시사용하는 점검표와 점검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대형 상가 · 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 ①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 ③ 점검결과와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납작 창문은 벽면적의 40%일 때 에너지절감 최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디자인 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창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열손실이 많은 창호(벽체에 비해 6~7배 낮은 수준)의 적정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기준이 없어, 이번에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건축설계 시 에너지 성능을 고려한 다양한 창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중부·남부·제주로 지역을 구분하고 창호가 면한 방향(동·서·남·북)별로 창면적에 따른 열손실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경우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창을 크게 설치하는 남향의 경우 창면적비(Window-to-Wall Ratio, 벽면적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를 40%(중부·남부지역)로 설계할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창면적비를 40%로 설계하고, 자연광이 충분할 때 자동으로 조명을 소등하는 제어시스템을 함께 설치할 경우 약 20%의 에너지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건축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과 에너지 성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게시하고, 지방자치단체·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에는 책자로 배부하여 건축설계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달러(One dollar)의 즐거움

박진금 원장 / 공학박사
(주)한국구조물안전원



앙코르 왓은 캄보디아 씨엠릿에 위치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칭되는 웅장, 화려 하면서도 신비스러운 건축물이다. 누구나 씨엠릿의 앙코르 왓을 한번쯤 가보고자 하는 마음은 다들 있을 듯하다.

사진으로 보면 돌로 만들어진 돌 조각품 같은 건축물과 희귀한 나무들의 신비스럽고 특이하게 자라난 모습들이 호기심을 자아내게 한다. 9세기부터 크메르 제국을 건설하고 오늘날 앙코르로 알려진 나라의 최초 왕 자야바르만 2세가 세웠다고 역사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크메르제국은 수리아바르마 2세와 자야바르만 7세때 전성기였고 앙코르 왓은 앙코르 왕국의 수리아바르만 2세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한다.

앙코르 왓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첫 관문인 씨엠릿 공항을 통과해야한다. 입국수속을 하기위해 줄로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가 싶으면 알아듣지 못할 어려운 말들이 몇 마디 오가면서 가이드의 설명이 시작된다.

여기 공항은 급행료가 필요한데 원달러만 내면 바로 수속이 시작되고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엄포성발언 이다.

이것은 원달러를 받기위한 공항 측의 수법이다. 그리고 원달러를 여행단체별로 걷어서 주면 돈을 받는 제복 입은 관계자는 우월감에 찬 모습으로 척척 받아서 신속히 처리해 준다. 이것이 원달러의 소중함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다음날 앙코르 왓을 관광하는데 동남아의 빈곤국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잡다한 선물을 가지고 원달러! 원달러! 외치며 자기 것을 어떻게든 팔아 보겠다고 안간힘을 다 써본다. 처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흥정을 한다 한 개 내지 두 개에 원달러 하다가 일행이 자리를 옮길 정도가 되면 개수가 자꾸 올라가기 시작한다. 결국 떨어까지 나온다. 마음이 안쓰러워 다소는 필요 없지만 큰돈이 아니므로 원달러를 주고 물건을 사준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준다.

정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불과 얼마 전 빈곤의 시절을 경험한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캄보디아 씨엠릿 2박3일 동안 계속하다보면 현지인들로 하여금 원달러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원달러면 천원 조금 넘는 돈인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원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고 고맙게 여겨 줄 사람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행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원달러 모임을 가져서 모금도 하고 얼마간의 연회비를 걷어서 캄보디아 빈민들을 돕는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 봤다.

다들 동감은 했으나 외국을 다닐 시간과 금전적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원달러의 즐거움을 같이 하는 날이 또 오기를 기대하며, 그들이 잘사는 것을 볼 때까지 여행은 계속 될 것이다.

백일홍(百日紅)

김영란 주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새색시 같은
붉은 얼굴을
보이는 꽃 백일홍

원래는 잡초였으나
누군가의 손에
어여쁘게 다듬어진
백일홍

나직하고 소백해서
더 정겹게 보이는 구나

너에게 다가가면
내 얼굴도 소녀처럼
붉어지겠지

하지만 백일홍의
화려한 꽃 색깔에도
마냥 화려해 보이지
않은 이유는

어느 한 처녀의
슬픈 이야기가 담긴
백일홍의 전설 때문이겠지



「화장실의 작은 역사」



이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뒤안길로 사라진 한 작은 역사가 있다. 바로 화장실의 역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아직까지 생물로서 존재하는 이상 배설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처리법 또한 여러 모로 고안되어 왔다. 이 책의 제목은 단순히 화장실의 작은 역사라고 적혀 있지만 그 안의 행간을 뚫어 보면 단순한 화장실의 공간이 아닌 고대 로마에서부터 현대 수세식 화장실까지 이르는 배설물과 그 처리에 관련된 인류의 장구한 사회 변화의 역사를 200여 페이지에 간략하게 담아내고 있다. 가능한 한 필자는 이 책이 화장실의 역사는 분노처리의 역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한다고 간주하려 한다. 그렇다면 분노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대부분의 인류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대에 분노는 농사에 필수적인 일종의 '자원'이었다. 땅을 기름지게 해 줄 유일한 비료는 가축들의 분뇨와 더불어 인간의 분뇨였다.

작자 : 다니엘 푸러 / 역자 : 선우미정 / 출판사 : 들녘

따라서 분뇨는 수집의 대상이자 풍작을 약속하는 축복이었다. 더불어 인간의 오줌은 가축 가공이나 염색 공정 등에서 필수적인 화학 재료이기도 했다.

형편이 나아지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분뇨를 자원으로써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층이 생겨났다. 오물의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던 사람들은 분뇨를 집안에서 요강에 모아 길거리에 버리곤 했다. 중세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성이나 주택의 창문을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이라면 창 아래로 늘어진 갈색 얼룩이 기억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분뇨를 창밖으로 내다버린 흔적이다. 심지어 일부 창은 엉덩이를 내밀고 웅변을 보는 용도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자연스레 길거리에는 오물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저 참고 견뎌온 오물문제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의 인구밀도가 높아지자 큰 문제가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냄새와 수질오염 외에도 전염병의 문제였다. 콜레라 등의 전염병은 도시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었고 마침내 수세식 변기가 완성되었다. 이 혁명적인 수세식 변기는 모든 오물을 물에 가두어 하수도로 배출하였다. 이 방식은 인간의 생활공간에서 분뇨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내뿜을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이 책은 이 근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류와 분뇨는 서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 위대하게만 보였던 수세식 변기는 다시 현대에 들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환경오염과 인구밀집 문제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문제로 대두되고, 하수도로 배출된 분뇨를 더 이상 그대로 바다에 흘려보낼 수 없게 되면서 하수도 처리시설의 운영비용이 증대하였다. 거기에 분뇨를 대신하는 화학비료에 의한 대지의 오염문제도 발생하면서 70억 인류에게서 발생하는 분뇨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재고해 봐야만 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화(火)세식 변기와 미생물 분해 변기를 비롯한 새로운 분뇨처리방법을 고안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 건축에서 화장실이 가진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저 잉여 공간을 편리성과 더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냈을 뿐 가장 중요한 분뇨처리의 역할은 작은 세라믹 수세식 변기에 모두 떠넘겼을 뿐이다. 화석연료 시대의 황혼기가 도래하고 더 이상 에너지와 수자원을 마음껏 낭비할 수 없게 되면 화장실의 모습은 분명 현재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미래의 건축에서 화장실은 어떤 모습으로 어느 위치에 자리 잡게 될까? 화장실의 위상을 재고해야만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가형 학생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언덕이 보이는 포구”

- 8호 사이즈 / 수채 -

늘 넉넉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바다
작은 포구 그늘에서 듬뿍 물먹은 붓을 들어
언덕을 오르내리고 해변을 돌아
어느샌가 캔버스 속 파란 바다와 하나가 된다.



담양 명옥헌원림

자연 속에 융화된 명옥헌
다양한 사진과 절묘한 곡선의
만남은 또 하나의 예술이다.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특징

-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자재
 - 자외선에 강한 내구성
 - 높은 내한 보온성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원목에 가까운 질감
 - 난연재로 화재에 안전

LW PANEL 규격 : 1300 × 3050 × 6T



시공사례사진



주력제품 : FBD PANEL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시공사례사진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

프리캐스트 판넬을 이용한 지중연속벽 공법 **JTPC WALL**



지하 구조물, 이젠 바뀔때입니다

혁신적 지중 연속벽 공법 - PC WALL

친환경 공법 · 공사기간 단축 · 안전성 우수 · 높은 경제성



고밀도 지반보강 **GEOCON 공법**



빠른시공, 무소음, 무진동, 비배토공법 **ROTARY PILE**



신축, 증축, 리노베이션, 기초보강 **MICRO PILE**



중·저층 건물 지반보강 **팡이기초**

건축문화 사랑상

Vol.033 10, AUGUST 2012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상**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2.08

033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광주문화재단의 꿈 _ '문화의 숲 함께 가꾸기'



인터뷰_ 사람 & issue

광주 / 건축사사무소 시명 차은영 건축사



인터뷰_ 螢窓雪案

광주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조형근 교수

시론 02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도시재생 구현 _ 안용훈

특별기획 03

광주문화재단의 꿈 '문화의 숲 함께 가꾸기' _ 박호재

설계경기 04-05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건축과 도시계획 06

세계의 신도시 / 12부 페르몽, 포스터시티, 필립스랜치 _ 도영준

사람 & issue 07

역사학자를 꿈꾸던 여린 소녀가 남성의 전유물인
건축 설계시장에 뛰어든 이야기 _ 차은영

지역건축문화 08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4부 / 하의도의 근대건축, 목포의 석조건축 _ 김지민

螢窓雪案 09

"건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스러운 으뜸의 행위이다" _ 조형근

Memorial Box

Memorial Box of the citizen, by the citizen, for the citizen

2012년 광주 폴리는 광주 시민 개개인의 기억적인 물건을
수집하고자 한다.

우리가 체언하는 Memorial Box는 시민의 기억을 담는
타입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기억을 담아 도시의 공간, 추억의 장소에 Memorial
Box를 놓는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모습으로 놓아
놓는다.

Memorial Box는 일상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행위를 유발하는
장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체언하는 폴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과물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과정, 즉 광주시민의 행위를 디자인하고자 할이다.



광주 역사 존



광주 시민 개인의 기억



광주 시민 폴리



2012 광주폴리 최우수작

‘Memorial Box of the Citizen...’ 선정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도시재생 구현

안용훈 과장_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신축공사 설계경기